

# 마음 올바르게 집중된 상태가 '禪'

## 청정도론 (하)

(청정도론)에서 선정(禪定)에 관한 설명은 앞에서 밝혔듯이 3장에서 13장에 해당하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장-업처(業處)의 파지(把持)의 해석, 제4장-지변(地邊)의 해석, 제5장-여변(餘邊)의 해석, 제6장-부정업처(不淨業處)의 해석, 제7장-6수념(六隨念)의 해석, 제8장-수념업처(隨念業處)의 해석, 제9장-범주(梵住)의 해석, 제10장-무색(無色)의 해석, 제11장-삼매(三昧)의 해석, 제12장-신변(神變)의 해석, 제13장-신通力(神通力)의 해석.

우선 제3장의 수행방법(業處)에 대한 해석에서는 선정에 대하여 8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특히 삼매에 대해서는 선한 심일경성(心一境性)이 삼매(三昧)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삼매는 등지(等持)의 의미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하고 등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위력에 대해서 마음과 마음의 작용(心所)이 평등하면서도 올바르게 산란하지 않게 머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등지라고 표현되는 삼매라는 선정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청정도론)에서는 선정에 달하는 방법으로 40업처를 제시하고 있다. 선정수

## 글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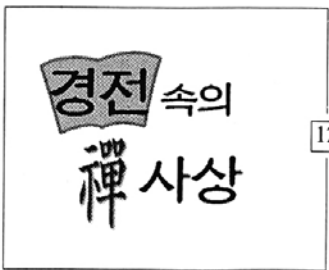


강명희

(대림대 강사)

행의 방법이 6가지 인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40업처를 배태하고 있다.

탐욕이 많은 사람(貪行)의 수행방법으로 10부정(十不淨)을 가리켜 깨닫지 못한 상을 생하는 것(不善心)과 신자님(身至念: 신체의 부분 부분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12

## 선정 달하는 수행방법 40업처 제시 지관쌍수 통해 삼독심 소멸 강조

권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嗔行)의 수행방법으로 4범주(四梵住)·정변(淨邊)·황변(黃邊)·적변(赤邊)·백변(白邊)을 권한다. 어리석은 자(癡)의 수행방법으로 출입식념을 권하며 신앙심이 없는 사람의 수행방법으로 6수념(佛·法·我·僧·捨天隨念)을 권한다. 지혜가 열등한 사람(學行)의 수행방법으로 사수념(死隨念)·적지수념(寂止隨念)·계차별(界差別)·식염상(食厭想)을 권하며 사변적인 사람(得行)의 수행방법으로 출입식념을 권한다.

이러한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할 수 없으므로 (청정도론)에 나타나는 6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지변(地邊)의 수행방법을 살펴본다. 지변이란 땅(土)을 관하여 정신집중을 얻는 선정법이다. 먼저 이 수행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땅을 선정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오문작용(五門作用: 안·이·비·설·신의 인식기관의 작용)에 의해 파악한다. 그 대상을 오문작용에 의해 어느 정도 인식하여 완전히 파악하면 이렇게 파

악된 대상은 취상(取相)이라고 불려진다. 이 취상은 이미 외부에 있는 색경은 없고 법경, 즉 의문(意門)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오문의 대상인 색경과 같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다.

이와같이 (청정도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행방법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도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정에는 안지정(安止定)·근행정(近行定)·찰나정(剎那定)의 3가지가 있다. 안지정과 근행정은 지(止)를 수행하는 사람이 특별히 달하는 선정이며 찰나정은 관법을 행하는 자가 의지하는 선정이다. 이 때 안지정은 4색계정(四色界定)과 4무색계정(四無色界定)을 말하고, 근행정은 6수념종의 10업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선정과 안지정에 도달하기 직전의 심일경성(心一境性)을 말한다. 또한 찰나정은 찰나적으로만 존재하는 선정이다.

이 세가지 선정에 의해서 마음은 항상 평등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탐심과 집심과 수면과 들뜨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과 삼도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없앨 수 있다. (청정도론)에서 밝히고 있는 선정의 상태는 매우 단계적이면서 구체적이다. 또한 지(止)와 관(觀)의 행법은 표면적으로 대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 수행상에서는 각각 수행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른 수행방법(業處)의 차이므로 내면적으로는 지수행에 관수행이 도입되고 관수행에 지수행이 도입되어 지관쌍수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 과학산책

### 박테리아

지구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인가? 아니면 곤충을 포함한 동물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먹이 사슬의 아래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식물인가?

위테커(R. H. Whittaker)의 생물 분류 5개 계이론(Five Kingdom Theory)에 의하면 생물은 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핵이 있는 진핵생물은 아메바, 짙실벌레가 속해 있는 원핵생물계, 버섯, 곰팡이가 속해 있는 균계, 그리고 동물계와 식물계로 나뉜다. 이 중에서 알 수 있듯이 핵이 없는 원핵생물에는 박테리아가 속해 있는데 독자적인 왕국을 이룬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개체 수로 기준을 삼으면 지구의 주인은 단연 원핵세포가 될 것이다. 개체 하나 하나에 투포인이 부여된다면 단연 원핵세포의 세상이 될 것이다.

원핵세포는 다양한 곳에 살고 있다. 고지대에서 바다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사람의 창자에도 산다. 우리 60억 인구의 창자에 3.3x10<sup>10</sup>가 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창자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이롭다. 위스콘신 대학에 의하면 ([http://whyfiles.news.wisc.edu/shorties/count\\_bact.html](http://whyfiles.news.wisc.edu/shorties/count_bact.html)) 달린 한 개체는 1조분의 1그램정도이지만 원핵세포의 전체를 합치면 지구의 모든 식물의 무게와 동일하다. 즉, 대략 10억분이 된다. 원핵세포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조지아 대학의 미생물학자인 윌

그리고 낮고 깊은 바닷물이라는 대표적인 곳으로 나왔다. 그런데 과학문헌을 뒤져 각 서식처에 사는 박테리아의 밀도를 찾았다. 그리고 나서는 단순한 곱하기를 했다. 밀리미터 단위의 서식처 크기에다 밀리미터당 서식하고 있는 원핵세포의 숫자를 곱하면 그 서식처에 사는 박테리아의 전체 숫자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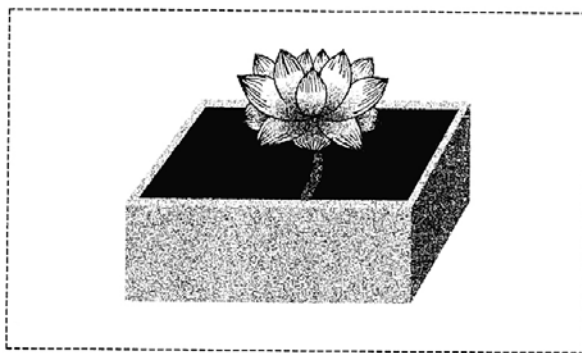
### 1g당 4천종...생물계 절반까지 산소 생산·온난화·부패에 관여 자연과 인간 상호 공생관계 입증

리암 화이트만에 의하면 대략 5x10<sup>10</sup>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뭐로 보나 큰 수이다. 동전 쌓기를 하면 이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는 데 빛의 속도로 가도 1조 광년이 걸린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숫자가 나왔을까? 물론 죽을 때까지 세도 이 같은 엄청난 숫자는 얼지 못할 것이다.

박테리아는 개개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위트만과 동료들은 표본 추출 기술을 이용했다. 원핵세포가 사는 세상을 숲, 사막, 담수,

이 곰팡이에 의하면 가로 세로 8미터의 땅 표면에는 26x10<sup>10</sup>개가 살고 수중 서식처에는 12x10<sup>10</sup>개가 산다. 그러나 실제 많은 수는 지하에 산다. 표면으로부터 8미터 아래에는 25에서 250x10<sup>10</sup>개의 원핵세포가 산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 아래에는 355x10<sup>10</sup>개가 산다.

우리 생물권의 반 정도가 너무나 조개, 울고개가 아닌 원핵세포에 의해 덮혀있었다! 심지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 연구는 지



구에서의 삶을 논할 때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원핵세포에 온당한 대우를 해줘야 함을 납득시키고 있다. 실제로 원핵세포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지구온난화, 산소, 질소 생산, 오염물질의 부패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중요한 생물체다. 이 데이터는 또한 원핵세포의 놀라운 다양성을 설명해 준다. 이 다양성이 열음에서 끓는 물에 이르는, 지구의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서식지에서 잘 자라는 것을 가늠해 준다. 즉, 박테리아는 각 서식처가 제공하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여 자신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그 환경에 잘 적응하였던 것이다.

실제 원핵세포적인 다양성은 측

정할 수 없다. 스칸디나비아의 연구자들은 땅 1그램에는 적어도 4,000 종의 박테리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을 이루는 다른 생명체들과 서로 살리고 살리는 생생(生生)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자연과 같이 자연스럽게 살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내세울 내가 없기에 다른 생명체에게도 마음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존재와 역할에 감사할 수 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고정된 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더 넓은 자연의 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으리라.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1

반야바라밀다 문헌 11

우리의 공포와 근심, 격정, 분노의 폭발 등은 완전한 소유에 대한 갈망이 실패했음을 암시한다. 우리의 완전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이라고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극도의 고양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담대한 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푸르동은 그의 시 (이방인)에서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종종 나에게 묻곤 한다. 너는 어떤 종인가?  
너의 마음을 연속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너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짚은 고뇌는 나 자신을 놀라게 하고, 나에게 항상 그의 조국과 이름을 숨기는 한 고귀한 이방인이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얼마동안 믿을 정진 마음챙김 선정 지혜 다섯 가지의 덕을 수행하여 발전시키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입구 즉, 정신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접할 수 있다. 다섯 가지의 덕은 우리 주변의 조건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편견 없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그 자체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물질적, 심적 변화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마음을 끄달리지 않으며, 그 속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에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상징이나 사건이나 어떤 대상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장애처럼 보인다. 다시말해 다양한 조건들로 이루어진 대상을 대하면 단순히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부처님이 우리

## 지혜의 완성 길 안내

### 타인 존엄성 침해않는 가르침 제시

에게 남긴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계속 이어진다. 길이 나타나면 전에 타파하거나 분쇄하지 못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덩어리는 분쇄되고 타파된다."

바라밀다(Paramita)는 다섯 가지 덕이 철학화된 불교의 교리이다. 반야바라밀다 문헌에서 부처님 다음으로 권위있는 수보리(Subhuti)는 평화 속에 머무는 자들 중에서 첫째라고 특별히 불리는 데, 그들은 싸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며, 평화 속에 있는 그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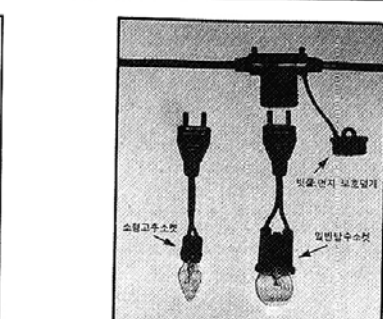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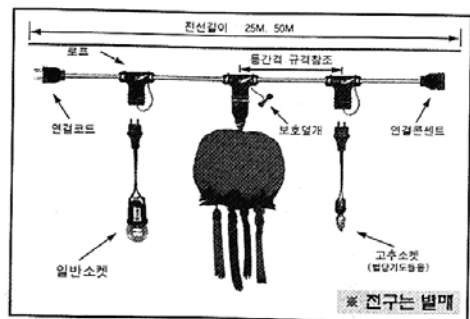
반야바라밀다 문헌은 서기전 100년부터 서기 600년까지의 사이에 만들어진 38권의 경전을 말하는데, 이중 4세기경에 만들어진 <금강경(Diamond Sutra)>이 대표적이다. <금강경>은 지혜의 완성을 뜻한다. 산스크리트어로 바즈라케티가 프라즈나파라미타(Vajracchedikā Prajñāpāramitā), 이다.

이들 문헌들의 공통점은 자아의 완전한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지혜의 통찰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 가르침은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섯 가지 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참아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타파라타>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 가장 좋아하는 신조에 집착하는 열렬한 지지자는 반대되는 신조를 '하찮은 것'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싸우는 개들과 마찬가지로이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야, 지식의 창고에 근거를 두지 않으며, 감각이 있는 사물들이 의식 있는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진실을 식별할 수 있겠는가." 번역=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 사찰·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사찰·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납품)



### 규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려 주문이시면 편리합니다.

###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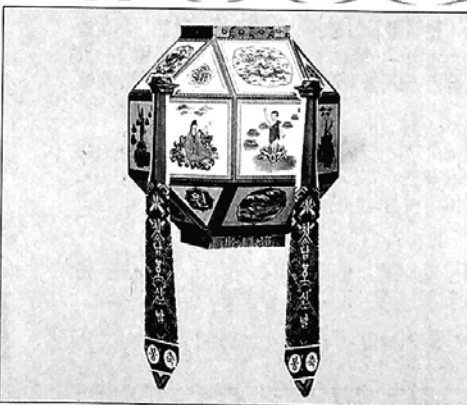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017-259-4471

부산·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 : 011-833-8018

영·호남지사  
경남 진주시 월말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 (0591)757-3626 휴대 : 011-869-4854

##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인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일용 불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2277-1548 H:(016)552-9360

##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집이 필요없습니다!!

###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집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정입'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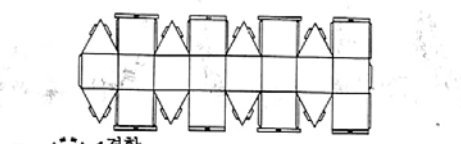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단화된 유봉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풀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